

키프로스 분단극복 평화교육: 다문화적 평화공존 사회를 향한 교육

강순원*

요약

본고는 분단국가 키프로스가 분단의 역사적 상흔을 치유하면서 미래지향적인 평화공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평화교육을 지향하며 실천하고 있는지를 문헌연구와 현장연구를 통해 탐구한 결과이다. 한반도 분단과 달리 이념과 체제 기반의 분단이라기보다는 인종적, 종교문화적 갈등 기반의 키프로스 분단은, 특히 영국 식민지하에서 분리통치의 폐해가 분리주의적 교육과 종교에 의해 뒤엉킨 채 독립 후에도 종파분리주의적 폭력적 대치의 역사가 심화되다가 급기야 분단이라는 과국을 맞이한 결과이다. 1974년 분단 이후 키프로스공화국에서는 역사적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세계시민으로 더불어 살아가야 할 역량을 기르는 다문화 평화공존 교육을 강조하며 정부와 시민사회, EU, UN 및 해외 평화기구들이 협력하고 있다. 이같이 글로벌 보편성과 키프로스 분단의 특수성이 조화된 키프로스의 다문화 평화공존 교육은 분단 체제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분쟁국들의 분단극복 평화교육 방향 설정에 상당한 시사점을 준다.

주제어 : 키프로스, 분단극복 평화교육, 다문화 평화공존 교육, 스토리텔링, 역사적 트라우마

* 한신대학교 심리아동학부 명예교수, kangsw@hs.ac.kr

I. 머리말

최근 연이은 이스라엘의 확장 공포는 특히 지중해에 위치한 분단국, 키프로스의 시민들을 두려움에 떨게 한다. 필자가 2024년 6월16일 키프로스 평화교육 현장연구를 위해 출발하려는데 키프로스 주변의 전쟁 발발 위험을 거론하며 가족들이 연구 진행을 만류했으나 키프로스 관계자들이 괜찮다고 하여 짧게 진행하였다. 다행히 필자가 체류했던 3박4일 간의 연구 기간은 괜찮았으나, 키프로스 출국 직후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등 이슬람국가들이 이스라엘의 반헤즈볼라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타격되자 키프로스도 전쟁에 휘말릴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무엇보다 키프로스에는 영국식민지로부터 독립한 이후에도 제국주의 전쟁의 요체가 될 수 있는 영국 군사기지가 아크로티리와 데켈리아에 잔존하고 있어(이미령, 2019), 여기에서 시리아와 예멘 공격 작전 시 드론을 띄워 헤즈볼라 기지를 공격했기에 여차하면 헤즈볼라가 키프로스의 영국령 군사기지를 반격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키프로스의 니코스 크리스토투리데스 대통령은 키프로스는 어떠한 방식의 전쟁에도 관여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을 안심시키려 하고 있으나 자칫 이스라엘전쟁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는 사회적 불안감은 상당하다고 전한다(서혜림, 2024). 이런 까닭에 ‘키프로스 평화위원회’를 중심으로 많은 시민사회가 제국주의(식민주의)의 잔재 영국령 군사기지 철수를 주장하며 연일 시위를 전개하고 있었다(People’s Dispatch, 2024).

1974년 내전으로 분단된 이후 친그리스계 남키프로스는 국제사회

가 공인하는 키프로스공화국을 계승하게 되고, 내전에서 국토의 36%를 장악하게 된 북키프로스는 유엔과 국제사회는 인정하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북키프로스 튀르키예공화국으로 1983년 선포되었다. 본 연구의 제한적 범위인 키프로스공화국은 2004년 EU에 가입하고 2008년부터는 유로화를 자국통화로 사용하고 있다. 이후 키프로스공화국은 유럽화에 가속도를 내고 특히 교육 부분에서 유럽표준을 적용하는 경향이 커졌다(Rotsides, 2001).

그럼에도 남키프로스 사회에 내재해 있는 반(反)·북키프로스 적대적 이미지를 재생산하는 교육을 극복하기 위한 평화교육적 노력이 UN이나 EU 기반의 국제규약에 맞춰 보편적 인권과 평화, 문화적 다양성을 전제하는 다문화 평화공존 교육으로 시도되고 있다(Zembylas, 2020). 특히 EU와 UN은 교육을 통한 평화 구축 프로세스를 무엇보다 강조하기에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도 다양한 협력을 전개하며 폭력의 문화를 평화의 문화로 전환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전환적 노력들이 ‘다문화 평화공존 교육’으로 명명가능한 키프로스 분단극복 평화교육을 구성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Hadjipaulou, 2007; Zembylas & McGlynn, 2012).

본 연구의 목적은 키프로스공화국의 다문화 평화공존 교육의 방향과 실재를 문헌연구와 현장연구를 통해 분석하여 일반화된 분단극복 평화교육 모형으로의 개발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한반도 남쪽인 대한민국과의 비교가 주 목적이어서 아쉽게도 북키프로스 지역은 이번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주지하였듯이 키프로스 주변 정치환경의 불안정성 때문에 현장연구 체류 기간이 짧은 관계로 필자는 이메일로 사전에 질문지를 보내고 답을 받아 이

를 토대로 현지에서 추가 질문하며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인터뷰에 응한 평화교육 활동가들은 다음과 같다. 이들은 연구에 동의하였고 본명 사용에 동의하였으나 연구 윤리를 고려하여 가명으로 처리하였다.

가나 키프로스 교육부 유네스코 담당국장

나나 유네스코ASP학교 교사. 라르나카지역 고등학교 영어교사

다나 유네스코ASP학교 교사. 니코시아지역 중학교 그리스어 및 역사교사

라나 니코시아지역 유네스코 ASP 중학교 교장

마나 대학교수, 평화교육연구자

바나 초등학교교사 출신 시민사회 조직활동가, 유엔평화대학 졸업생

사나 시민사회자원활동가, 전직 교육부관료

II. 키프로스 교육의 사회사

1. 키프로스 분단 과정의 사회사

키프로스는 지중해의 아름다운 관광국이지만 지정학적으로는 남북으로 분단된, 역사적 상처가 많은 분쟁지역으로 간주된다. [그림 1]에서 보듯이, 9,250km²의 작은 섬 키프로스는 남쪽의 키프로스공

화국, 북쪽의 북키프로스 튀르키예공화국, 영국령 군사기지 그리고 180km 그린라인에 따라 조성된 유엔군주둔지(완충지대)로 나뉘어 있다.



[그림 1] 키프로스 지도



[그림 2] 지중해의 키프로스

키프로스 섬은 [그림 2]에서 보듯이 예로부터 아시아-유럽-아프리카가 이어지는 해상의 요지로서 지중해 거점 확보를 위한 숭한 전쟁이 이곳에서 일어났다. 셰익스피어의 작품 ‘오셀로’의 비극이 일어난 곳이 베네치아 지배 시절 키프로스이다. 지배세력이 여러 번 교체되었던 만큼 주민 구성의 인종적 배경도 다양하다. 그중 다수는 그리스계였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튀르키예계가 가장 큰 소수와 주민이다. 그 외 아르메니아인, 두호보르파 러시아계 주민 그리고 아랍인 공동체가 있지만 전통적으로 이들은 섞여서 조화롭게 살았다.

<표 1>로 만들어 살펴보았듯이, 키프로스 분단의 역사는 영국식 민지화 단계에서 주민 계파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독립 후 무력적 충돌로 이어져 국가분단으로 귀결되는 과정이다.

<표 1> 키프로스 분단의 역사적 발자취

역사적 단계	지배관계
식민지 전단계 (Early Colonial Period)	고대사회(주변 여러 강대국에 의한 정복) 비잔틴(330-1191) 프랑케시(1191-1489) 베네치아(1489-1571) 오토만(1571-1878)
영국식민지 (British Crown Colony)	1878년 오토만 제국은 영국에 키프로스 이양. 1923년 1차대전 후 로잔조약에 의거 영국에 병합. 1925년 영국 식민지(Crown Colony)가 됨. 1930년대부터 그리스계 주도로 독립운동 발발. 1950-1955년 그리스·튀르키예 간 대규모 폭동. 1960년 영국은 자국 군사기지 두 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식민지적 지배를 포기.
독립 후 내전과 분단 (After independence and Division)	1960년 ‘취리히·런던 협정(보호조약)’에 의거하여 키프로스는 키프로스공화국으로 독립. 1963-64년 그리스계 EOKA세력과 터키 방위대가 극렬하게 대립하며 내전을 방불케 함. 1964년 UN은 평화중재군 파병. 1974년 7월 키프로스의 그리스 병합을 위한 군사쿠데타 발생. 튀르키예 참전, 5일만에 그리스계 쿠데타 세력을 진압. 튀르키예가 8월에 제2차 키프로스를 침략, 국토의 36%를 점거. 키프로스 분단 고착. 1983년 북키프로스 튀르키예공화국 선포 2004년 유엔의 통일안(Annan Plan)에 대한 국민투표에서 튀르키예계는 찬성했으나 그리스계는 반대하여 부결된 채 분단 체제로 지속됨.

1489년부터 이어진 베네치아 공국의 지배가 오스만 제국에게 1571년 무너지면서 1878년까지 이어지는 300년 넘는 기간의 오스만 제국의 지배는 키프로스 기독교문화에 이슬람문화가 접목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당연히 오스만 지배 초기엔 그리스계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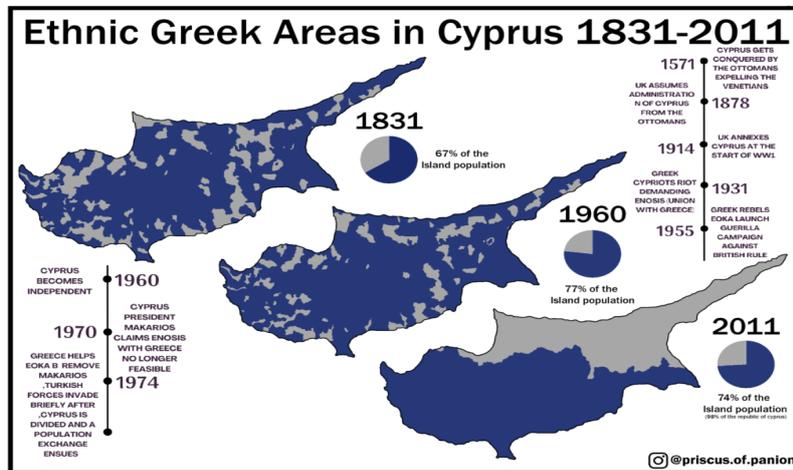
민족적, 종교적 박해를 받았다. 하지만 이슬람 종교원리에 따라 오스만은 키프로스 정교회 주교가 섬 전체를 관장하게 하고 종교적 차이를 인정하였기에 여전히 그리스 정교회가 주민 다수의 지배적 신앙 체계였고 기타 소수민족의 종교도 보장되었다(Jennings, 1993).

하지만 튀르키예-러시아전쟁(1877 - 1878)에서 오스만제국이 패하면서 1878년부터 영국은 키프로스를 동방문제 해결의 전략적 거점지로 간주하고 피보호국으로 삼았으며(김경민, 2019), 일차대전 후에는 승전국으로서 1923년 로잔조약에 따라 키프로스를 영국관할로 병합하고 1925년 대영제국 왕령식민지(Crown Colony)로 수용하였다. 이로써 영국식민지 키프로스는 그리스도 아니고 튀르키예도 아닌 키프로스 섬 주민이라는 아이덴티티를 새롭게 주입받으며, 분리·통치(divide and rule) 식민지정책에 따라 인종적 갈등이 조장되고 심화되는 시기를 맞이하였다(Madianou, 2012). 하지만 식민통치 기간 내내 키프로스 정체성(Cypriot)은 강고한 그리스계 에노시즘과 튀르키예계 분리 민족주의 탁심으로부터 공격받았다(Antoniou, 2015).

일례로 1955년 그리스계 키프로스 전사 민족단(EOKA)이 독립운동을 일으키자 영국식민지당국은 이에 튀르키예 저항단(TMT)을 투입하여 양 민족간 폭력적 충돌로 환치시키는 적대화 전략을 취했다.(Demetriou, 2019) 당시 EOKA의 목적은 키프로스를 식민지로부터 독립하여 그리스와 통합하는 것이었기에 사실 튀르키예 주민의 입장에서 이에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도 있다. 이러한 극단주의적 종교 기반의 민족을 이간질하는 분리·통치 전략으로도 식민 통치가 용이하지 않자, 영국은 ‘취리히·런던 협정’(일명 보호조약)을 근거로 자국의 지중해 군사기지 아크로티리와 데켈리아를 실리적으로 챙기

고 그 외 키프로스 전역에 대한 식민지적 지배권을 포기하였다.

1960년 독립할 때 영국, 그리스 그리고 튀르키예는 두 민족 간의 균형적 통제를 법적으로 마련한 키프로스 보호조약에 서명하였지만, 그리스계의 불만은 아주 컸다(한명섭, 2020). 당시 그리스계 키프로스인의 비율은 77%였고 튀르키예계가 18%였다. 그럼에도 보호조약에서는 튀르키예계 부통령에게 영구 거부권을 부여하고 의회와 행정부에 30%의 공직 할당을 보장하였다. 결국 1963년 그리스계 에노시스파가 소수의 튀르키예계 키프로스인들을 거주지에서 몰아내며 폭동을 일으키자 이에 TMT가 무력으로 대적하면서 키프로스는 무법천지가 되었다. 유엔은 1964년 3월 키프로스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유엔평화유지군(UNFICYP) 6,000명을 그린라인 내 완충지대에 파견하였다(문선혜, 2021).



[그림 3] 키프로스 그리스계 주민분포 현황

출처: r/MapPorn(2024)

[그림 3]에서 보듯이 1974년 이전까지만해도 키프로스 전역에는 그리스계와 튀르키예계 공동체가 거주지를 공유하면서 때론 폭력적 대치를 하기도 했으나 전반적으로 함께 섞여 살았다. 하지만 1974년 내전 이후에는 남북이 서로 다른 국가로 완전 분단되어, 남에는 99.5%가 그리스계이고 북에는 98.7%가 튀르키예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다.

사실 1974년 7월15일 키프로스 내 극단주의 그리스계 세력인 EOKA-B에 의한 쿠데타는 그리스 본토에서의 쿠데타 연장이었다. ‘보호조약’에 의거하여 공존정책을 유지하던 주교 마카리오스 3세 대통령은 영국으로 황급히 피신하였고 쿠데타 세력이 옹립한 니코스 삼손이 대통령직을 맡는다고 선언하자 존립에 위협을 느낀 튀르키예계 키프로스인들은 극도로 반발하였다. 그러자 1960년의 ‘취리히·런던 협정’에 따라 키프로스의 헌법 질서를 회복시킨다는 명분으로 튀르키예가 5일 후인 7월 20일에 군사개입을 하였다. 이때 영국은 불개입을 선언하였다. 그리스계 쿠데타 세력은 바로 진압되었고 다시 마카리오스 3세가 대통령직에 복귀하면서 평화회담을 이어갔으나, 튀르키예는 회담 결과에 불만을 품고 8월에 다시 침공하여 국토의 36%를 차지하며 분단국의 틀을 만들었다.

비록 쿠데타세력이 5일만에 진압되었지만 민족분단으로 고착된 1974년 내전이 가져온 희생과 상처는 양측 모두에게 역사적 트라우마로 남았다. 튀르키예가 점령한 북키프로스 지역 내의 그리스계 주민들이 학살당하고 집과 문화재가 불타고 훼손되었으며 17만 명이 추방되고 다수가 실종되는 비극을 초래하였다. 또한 남키프로스지역 튀르키예계 거주민 5만 명도 북으로 추방되고 실종되었다. 키프로스

실종자위원회(CMP) 자료에 의하면 1990년대까지 등록된 실종자 수는 2002명으로, 그리스계 키프로스인 1,510명과 튀르키예계 키프로스인 492명이 행방불명되었다(Ktori, 2023).

그리스계 쿠데타가 촉발한 내전이었지만 키프로스공화국이 패배함으로써 재확정된 그린라인을 기준으로 볼 때 전쟁 전 3%에 불과하던 튀르키예계 거주 면적이 약 36%로 늘어났다. 1983년 그린라인 북쪽의 북키프로스는 북키프로스 튀르키예 공화국으로 독립선언을 하였고, 튀르키예는 본국에서 10만명이 넘는 튀르키예인들을 키프로스 이주시켜 북키프로스의 국가태를 보강하였다(한명섭, 2020).

여전히 분단의 고통과 상흔을 안고 있는 분단국가이긴 하지만 키프로스공화국은 개인소득 4만 불이 넘는 선진국 반열에 들어있다. 반면 키프로스공화국의 실효 지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국제사회로부터도 미승인 국가의 처지에 놓여 있는 북키프로스는 경제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나 농산물이 풍부하고 튀르키예로부터 경제·사회적 지원을 받고 있어서 존립하기 어려운 상황은 아니다.

키프로스 분단과 갈등상황에 평화적으로 대처하기를 희망하는 유엔은 키프로스 실종자 문제해결 및 외국군대 철수 등을 담은 키프로스 연방제를 골자로 한 평화중재안을 꾸준히 설득해왔다(김현정, 2021; 조상현, 2020). 하지만 미국, 영국, 튀르키예가 합의한 ‘아난플랜(Annan Plan)’을 2004년 국민투표에서 튀르키예계는 수용한 반면 그리스계는 거부하였다(우덕찬, 2008). 이같이 키프로스 남북 간의 신뢰회복으로 가는 길이 여전히 멀지만(조상현, 2020), 오늘날 키프로스 주민 대다수가 이전과 같이 물리적 군사력에 의한 특정 국가 병합의 틀로 통일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일

반적으로 정치적 보수는 주로 에노시스 영향권에 있는 친그리스계 열이고 진보는 평화공존을 지향하는 친유로적 입장이다(Zembylas, 2015). 북키프로스는 남북 쌍방의 권력을 인정하는 연방제 통일안인 UN중재안을 수용하지만, 이미 EU에 가입하여 유럽의 일부가 되어 있는 그리스계가 이를 거부하는 한 연방제 통일안은 지난한 일로 보인다. 갈등 사회에서 물리적 공간의 공유(sharing) 및 다양성에 근간한 평화공존은 EU의 분단극복 평화 방안이나(Rotsides, 2001; Upadhyaya, 2020), 오늘날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북아일랜드와 키프로스의 평화 프로세스는 EU의 주요 원칙과 방향을 빚겨가는 모양이다 (Hadjipaulou, 2007; Zembylas, 2020; 강순원, 2017; 안정은 · 권주현, 2021; 김현정, 2021).

키프로스는 비록 종교적 차이는 있지만 남북 모두 자유선거에 의해 정치권력을 정하는 민주공화국이기엔 선거결과에 따라 통일에 대한 정치적 지형이 달라진다(우덕찬, 2008; 한명섭 외, 2020). 친그리스계이든 친튀르키예계이든 남북에서 각기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함으로써 선거를 통해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민주공화국으로서 키프로스는 오히려 양 민족의 모국인 그리스나 튀르키예보다 자유롭고 관용적이며 경제적 수준도 높다. 따라서 키프로스섬을 다함께 공유하며 평화공존하는 체제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아주 높아 보인다.

키프로스는 상당히 안정된 민주사회입니다. 1974년 트라우마를 안고는 있지만. 이전에 그리스계와 튀르키예계가 공존하는 구조였을 때는 지역에서 오가다 자주 대치하며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린라인을 기준으로 남쪽은 그리스계, 북쪽은 튀르키예계로 완전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접촉하며

부딪힐 일이 거의 없습니다. 다 자파공동체 안의 내부 문제에 골몰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통일은 이전처럼 같은 지역에서 한 국가 주민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사나)

1974년 사건 이후 남북 대치가 상호왕래나 접촉을 차단하고 있던 가운데 2008년 3월, 수도 니코시아 중심부의 레드라 거리가 자유 왕래지구로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키프로스 분단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던 이곳의 분단장벽이 2008년 4월 3일에 철거되었다. 그 외 3곳이 더 개방되었고 이후 5곳이 더 열려 현재 9곳의 검문소를 통해 자유 왕래가 가능하다. 이것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상호이해와 협력, 신뢰 구축에 아주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조상현, 2020).

우리는 지금 양쪽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습니다. 북키프로스 주민들은 북키프로스 여권이 해외에서 인정 안 되기 때문에, 남쪽의 키프로스공화국 여권을 받아 EU시민으로 자유롭게 해외를 다닐 수 있어서 실리적 측면에서도 북쪽에 살고 있지만 키프로스공화국 시민으로 지냅니다. 사실 1974년 이전에는 우린 한 국가 시민이었어요. 지금은 개방된 검문소를 통해 자유롭게 경제교류도 하고 개인적으로 물건도 사가지고 가고 친구 방문도 하고, 교육 교류도 하고 있습니다. 단지 1974년 이후 튀르키예에서 이주시킨 북 튀르키예 시민은 공화국 여권을 받는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교류와 협력을 하다보면 이전의 역사적 상처들이 아물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어요. (나나)

그럼에도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역사적 충돌에 대한 고통스런 기억으로 인해 분단의 사회문화적 장벽은 여전히 공고하다. 특히 종파분

리주의적 교육과정, 매스미디어의 선동적 분파주의, 일상에서의 자파 문화에 기반한 심볼의 사용, 노래나 의례 그리고 종교 및 이름 등에 드러난 ‘우리 대 저들(적)’의 이원화 등에서 적대적 혐오가 재생산되며(Hadjipaulou, 2007), 종파 간 폭력적 적대화는 여전히 사회 저변에 잠재되어 있다. 뿌리 깊은 분리·통치 영국식민지 지배방식이 야기한 민족 간의 내분 조장, 그리고 교육과 종교를 통한 분리구조의 재생산은 키프로스 평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고질적인 결함요인으로 작용한다(Antoniou, 2015). 여기서 교육은 문제의 원인이자 해결 방안이기도 하다.

2. 키프로스 교육의 역사·사회적 특성

키프로스의 현 교육구조의 특성은 오스만제국 지배 이후 영국식민지를 거치면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Kimitris, 2018). 대부분의 피식민지 국가에서 근대적 학교교육 제도는 식민지하에서 문화적 식민주의의 일환으로 수립되었다(Carnoy, 1977; Kang, 2010)는 역사는 키프로스에서도 그대로 입증된다. 특히 적대적인 종파분리주의적 교육 시스템은 영국 식민지하에서 방치되고 강화되었다(Papadakis, 2008).

영국 식민지하에서는 그리스계와 튀르키예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분리·통치 전략에 따라 공동체 간 적대감(inter-communal hostility)을 키우는 그리스 정교회와 이슬람 모스크의 교육적 권한을 그대로 온존시킨 채, 소수의 사립 엘리트 영어학교를 통해 영국식 교육에 물든 키프로스 정체성(Cypriot)을 지닌 근대인으로 양성하고자 그리스계와 튀르키예계 학생들이 함께 교육받는 통합교육을 시도했다

(Zembylas et al. 2011). 1차대전 후 로잔조약에 따라 키프로스를 오스만제국으로부터 이양받아 식민지로 갖게 된 영국은 다른 식민지경영 전략과 마찬가지로 겉으로는 너그럽게 “좋은 정부”의 이미지를 갖게 보이면서도(김경민, 2019), 피식민지 집단 간 갈등을 이간질하여 (inter-communal animosity) 독립을 향한 열정을 억제하고자 했기에 교육에서의 적대화 이데올로기 내면화를 통해 분란을 조장했다¹⁾. 영국은 아일랜드 식민지에서와 마찬가지로, 키프로스 식민지에 대한 교육투자를 거의 하지 않은 채 영어를 매개로 하는 엘리트 사립학교를 민간인이 주도하도록 하고 이를 뒤에서 지원하는 수준에서 그쳤고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보통교육을 행하는 공립학교의 틀은 발전시키지 않았다(강순원, 2017; Kambouri, 2012). 심지어 고등교육기관은 독립 후 1994년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키프로스대학교가 세워져 첫 학생을 받을 수 있었다(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2023). 피식민지에서 고등교육은 불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었기에 고등교육을 받고자 하는 피식민지 지식인은 그리스나 영국에 있는 대학에서 수학했다.

1960년 키프로스 독립 후 사립도 국가의 교육정책의 계도를 받아야 했고 교육문화부가 주관하는 보통학교는 국가재정으로 운영될 수 있게는 되었으나, 양계파 간 갈등이 일상에서 폭력적으로 노정되는 환경에서 이미 굳어진 종파분리주의 교육의 틀을 깨고 보편적 일반

1) 영국식민지 이웃 국가 아일랜드는 영국의 속담이나 문학에서 더럽고 문화가 없는 유럽의 촌뜨기라는 비아냥을 받아왔다. 영국의 식민지를 겪고 독립 후 분단상태로 있는 아일랜드에는 다음과 같은 속담이 있다. “오늘 이웃 둘이 싸우고 있다면 필시 어제 영국인이 방문했을 것이다”. 영국인이 몰래 와서 둘 사이를 이간질하여 싸우게 했다는 의미이다.

통합학교로 전환하기는 어려웠다. 독립 후에도 양 계파의 종교학교에서는 역사적 상흔에서 유래한 민족적 적대감을 부추기는 자민족 중심주의적 교육을 유지하였다. 그리스 민족주의(에노시즘) 대 튀르키예 분리 민족주의(타심)²⁾가 교육이념의 핵심이었다(Jennings, 1993). 배타적 민족주의에 기반한 교육은 결국 양 계파의 전사를 양성하는 토대가 될 뿐이었다. 모두가 다 보복하자고 다짐했고 과거의 억울한 고통 속의 한과 적이 가한 폭거를 잊지 말자는 교육을 지속하였다. ‘나는 잊지 않는다(I do not forget)’ 혹은 ‘절대로 잊지 말자(Never forget)’는 스토리텔링과 다짐을 통해 사회·역사적으로 형성된 폭력을 재생산할 뿐이었다.

1974년 내전 이후, 남쪽의 키프로스공화국은 유럽의 교육목표와 지향점을 공교육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기는 했으나 본질적으로 그리스정교회와 에노시스 민족주의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Kambouri, 2012). 오기성(2021)은 이러한 키프로스공화국 교육의 특성을 분리 민족주의 교육, 적대적 정체성 형성의 교육, 역사교육을 통한 역사적 트라우마 고착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형성된 상대 민족에 대한 혐오 및 적대화는 키프로스공화국 교육과정에 각인되어 있다. 특히 자과 중심의 음악, 체육, 역사 및 종교,

2) 오스만제국 시절에는 모슬렘이나 그리스 정교회가 자국의 민족주의와 결부되기보다는 종교적 관용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종교가 매개된 민족 간 충돌이 거의 없었다. 그리스계의 에노시스운동과 1차대전 후 오스만제국 몰락 이후 신생 튀르키예 국가건설에 성공한 무스타파 케말 아타투르크 대통령은 이슬람종교를 절대화하기보다는 근대국가 중심의 세속화를 강조하면서 튀르키예 민족주의로의 결집을 중요하게 여겼다. 결국 영국식민지를 거친 후 그리스민족주의와 튀르키예 민족주의 분리(타심)가 키프로스에서 충돌하면서 양 체제의 분단 이념이 고착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리스어 교육은 적대적 이미지 만들기에 앞장서 왔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분단국가에서도 국가교육과정(national curriculum)을 통해 왜곡된 국가정체성 강화 교육을 하는데(Zembylas & Bekerman, 2008), 키프로스의 경우 국가정체성이 그리스 민족주의에 기반하여 대부분의 교과 자료가 그리스에서 제작된 그리스어 자료이기에 문화적으로나 언어적으로 교육은 강력한 친그리스 통치 메카니즘이 된다(Papadakis, 2008). 키프로스공화국은 남북으로 분단된 이래 체제정당화를 위한 이데올로기적 장치로 교육과 종교, 매스미디어 및 사회조직들을 적극 활용하였다(Zembylas et al, 2011). 이같이 적대적 이미지를 조장하는 분단체제 정당화 교육을 아동기에서부터 주입하는 것은 남북 간의 공존 역량 형성을 방해하는 정서적 왜곡으로 이어진다(Zembylas, 2015). 이에 EU는 ‘역사교육 2001’을 통해 체제 유지를 위한 역사교과서 악용을 염려하면서 역사적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역사적 힐링 프로그램을 평화교육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다(Rotsides, 2001). 이러한 맥락에서 키프로스의 역사적 힐링을 방해하는 적대화 교육은 역설적으로 다함께 살기 위한 평화교육적 가능성을 열게 만들었다(Hadjipaulou, 2007).

현재 키프로스공화국의 공립교육은 학령전교육에서부터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무상이다. 1960년 공화국 설립 이래 학령전 1년-초등 6년-중학교(Gymnasium) 3년-고등학교(Lyceum) 3년-대학교 3/4년 기본 학제를 유지하고 있다. 의무교육은 학령전에서부터 중학교까지 10년이지만, 모든 국가교육은 누구에게나 무상으로 보장되는 중앙집권적 교육행정을 기본 축으로 삼고 있다(MOEC, 2023). 키프로스는 공산당

이 선거로 집권한 정치적 역사도 있을 만큼 국난 극복을 위한 사회주의적 해결 방식에 주민 동의가 높은 민주국가이다. 무엇보다 2004년 EU에 가입한 이후 키프로스의 교육은 EU의 기준을 따른다. UN 아동권리협약이나 유네스코의 보편적 교육규정은 키프로스 교육의 중요 목표도달 방향이다(Rotsides, 2001; MOEC, 2023).

분단 50년이 된 오늘날 키프로스는 남과 북 모두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안정적이다. 국민들은 키프로스가 그리스보다도 더 낫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키프로스 교육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아주 크다(EU, 2023). 특히 학령전교육은 유럽 어느 국가보다 강조되는데, 그 이유는 오랜 민족 간 갈등과 내전으로 한부모가정의 자녀들이 많아 이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기 돌봄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록 5세부터 의무이지만 3세 미만의 영유아 보육에 대한 지원도 무상이며 사회정책에 있어서도 아주 강조된다(MOEC, 2023).

이러한 교육복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불평등은 다소 심각하다. 고등교육에 대한 해외유학을 선호하는 풍토가 여전한 상황에서 진학에 유리한 교과를 우수하게 성취하려는 방과후 교육이나 추가교육 기회가 사교육 부담으로 이어진다. 학교에서 아이들은 무상으로 질 좋은 교육을 보장받지만 많은 아이들이 더 높은 학업성취와 더 좋은 기회를 얻기 위해 학교 내 방과후교육뿐만 아니라 학원이나 과외 같은 사교육에 의존하는 경향이 심각하다(Johnson, 2007). 두 자녀 중 큰 애는 그리스로 대학을 보냈고 작은 아이는 키프로스에서 대학을 다닌다는 한 교사는 대학준비가 학교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을 한다.

키프로스 교사들의 사회적 지위는 상당히 높습니다. 급여도 다른 직종에 비해 좋은 편이고 복지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도 교사지만 학교에서 배우는 그리스어나 수학 실력만 가지고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학교는 보편적인 가치교육에 집중하기 때문에 평화나 인권 그리고 다양성 존중 교육을 열심히 하고 학부모들도 이런 분야는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만, 학업성취의 측면에서는 불안해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나)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국가가 보장하는 교육의 질은 보편적 기준을 높이는 것이지 경쟁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고 믿는다. 교육이란 미래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치와 태도 등의 역량을 기르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교육문화부가 공적으로 표명하는 교육은 키프로스의 역사가 잉태한 내적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역량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요소가 잉태한 글로벌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를 길러주는 것이다(MOEC, 2023). 영재교육을 하고 싶은 학부모는 자기 비용으로 그렇게 하면 되고 국가는 모두를 위해 균형잡힌 교육을 준비하고 평등하게 접근하도록 제도화하는 노력에 집중하면 된다. 이런 까닭에 EU기준에 따라 미래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과학교육, 더불어 살아갈 글로벌 시민교육, 내적 갈등이 야기한 문화적 편협성을 극복하고 다양한 문화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다문화 교육은, 모두가 공유하는 키프로스 섬에서 공존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교육 방향으로 강조된다(EU, 2023).

III. 키프로스 다문화 평화공존 교육³⁾

키프로스는 민족 간 반목과 혐오 그리고 역사적 편견 등을 극복하는 내부 문제와 함께 외부적으로는 키프로스 연안에 매장된 천연자원개발을 둘러싸고 이해당사국들 충돌뿐만 아니라 지중해 인근 중동 지역 국가들의 분쟁에 관여될 위험성을 늘 안고 있다. 지배정당이 보수정당에서 공산당에 이르기까지 이념적 지향의 편차가 크다. 이렇듯 국내외적 요인이 자칫 심각한 갈등적 대치로 이어지는 상황이 도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폭력이 아닌 평화적/비폭력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대원칙의 수립과 평화를 영속화하기 위한 가장 평화적인 방법인 평화교육을 평생교육적 차원에서 실시할 필요성이 매우 강조된다(Johnson, 2007; Zembylas, 2020).

2008년 선거에서 당선된 키프로스 공산당의 디미트리스 크리스토피아스 대통령은 남북통일의 문제를 계급적 관점에서, 로칼 차원을 넘어 글로벌 차원에서 상호문화적 접촉을 확대하며 적대감을 없애고 평화적 공존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육을 하자는 원칙 위에서 평화공존 교육정책을 발표하였다(Zembylas et al, 2011). 이때 교원노조를 비롯한 다수의 교사들이 다문화 평화공존 교육에 대해 에노시스 민족주의 맥락에서 반대하였다. 여전히 그리스계 키프로스인들에게 ‘키프로스는 그리스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 혈통을 지닌 그리스계 키프로스인이다.’는 민족의식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배타적 민족주의에 기반한 통일교육은 EU가 지향하는 보편적 평화교육과 배치된

3) 키프로스 다문화 평화공존 교육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이 발주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평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화교육 연구기관 설립 기초연구”(강순원·오덕렬, 2024) 29-40쪽을 재구성한 것이다.

다. 다행히 에노시스 민족주의는 1974년 분단 이후 상당히 약화되어 이제는 EU 회원국으로서 다양성 기반의 다문화 평화공존 교육이 국가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1. 역사적 화해로 나아가는 다문화 평화공존 교육

자민족중심적 대치가 심각한 키프로스에서 요구되는 평화교육적 관점은 종파적, 민족적 분리주의의 정당화가 아닌 상호이해에 기반한 다원주의적 접근이다. 키프로스공화국과 북키프로스공화국은 각기 모국인 그리스와 튀르키예의 교육제도를 그대로 복제하고 있다. 특히 그리스는 키프로스공화국의 대학 진학자들에게 자국의 청년들과 똑같은 상호호혜적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키프로스 출신들을 위한 특별 배려로 일정 쿼터(special category)를 정하여 그리스 학생들처럼 국공립의 경우엔 무상으로 교육받고 졸업 후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키프로스는 자국 내 대학을 설립할 계획조차 하지 않았다. 1992년에야 국가고등교육과정이 종합적으로 개발되었고, 1994년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국립대학이 창설되었다(Kambouri, 2012). 그러다 보니 중등교육을 마친 후 청년들에게 대학은 그리스나 해외에 나가 공부하는 것이 권장되었고 이렇게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나 국내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그 결과 우수한 청년들이 해외에서 대학 졸업 후 귀국하기보다는 더 넓은 사회에서 일하고 싶어 돌아오지 않는다.

저는 아들이 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다 그리스에서 대학을 나왔고 거기서 직장을 잡고 삽니다. 여기는 늙은 저랑 처만 있습니다. 가족이 그림지만 아이들은 아마도 그리스에서 결혼하고 거기서 살려고 할 겁니다. 저희 집뿐만 아니라 다른 집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여기도 EU고 오히려 그리스보다 안정적이고 더 살만한 것 같은데 젊은이들은 안 들어오려고 합니다. 관광객은 넘치고 일할 사람들이 필요한데 아이들은 고국을 떠나고, 슬픕니다. (택시기사)

현재 키프로스 교육은 EU평가에 의하면 의무교육 10년에 일반학교 취학률이 99%로 그리스나 튀르키예보다 우수하다(EU, 2023). 국공립 교육이 전액 무상이고 교사의 사회적 지위는 EU국가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높고 사회적 존경도도 높다. 교육과정의 자율성도 보장된다(Kambouri, 2012). 그런데 교사들이 불편해 한다. 국가교육과정에 제시된 문화적 다양성 지침에 따라 역사, 언어, 문화와 종교 등을 교육해야 하지만 역사적 트라우마에 물든 지역사회에서 평화공존 같은 민감한 사회적 이슈를 논쟁거리로 만들까봐 교사들은 거의 수업에서 다루지 않으려고 한다(Zembylas et al, 2011).

저도 북에 살다가 1974년 전쟁으로 이곳에 온 난민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엄청 고통스럽죠. 눈앞에서 가족이 살해되는 현장을 봤고, 집이 태워지고, 부서지는 고통을 겪고 매일같이 무서운 꿈을 꾸었고 우리 식구를 고통스럽게 만든 튀르키예가 정말 싫었고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수십 년, 수백 년 살던 고향에서 뿌리 뽑힌 난민의 고통을 우리는 잘 이해합니다. 이제는 남에서 살다가 북으로 쫓겨난 튀르키예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들 고향에서 뿌리 뽑힌(up-rooted) 난민이죠. 이것이 실항민들에게 필요한 평화교육입니다. 이런 평화교육이 학생들 뿐 아니라 지역에 사는 어른들에게도 정말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들으려고도 안 합니다. 우리는 키프로스에 살고 있는 그리스인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리스는 그리스고 우리는 키프로스인이죠. 이런 이야기를 수업에서 잘못하면 엄청 갈등을 야기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이러한 방향으로 교육해도 지역사회에서는 아주 조심합니다. (나나)

튀르키예 주민의 역사적 고통도 사실 분단 후 북부에 살던 그리스계 주민들이 당한 고통과 유사하다(Johnson, 2007). 이들 역시 오랜 옛날에 이주해 온 키프로스섬 이주민이고 그리스계 역시 그리스인이 이주해 온 역사의 흔적이다. 이러한 상호 역사적 인식과 배려와 공감은 다문화 평화공존 교육의 핵심이다(Zembylas, 2020). 2005년 유네스코 문화적 다양성 선언이나 유네스코 각종 협약에서 제시하듯이 이러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공감 역량은 이주가 일상화된 현대 사회의 핵심 교육이고 특히 분단사회에서 분단의 저편에 대한 배척이 아닌 상호이해와 협력은 평화와 국제이해/세계시민 교육에서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키프로스가 처한 역사적 상흔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상호 인정할 수 있도록 교사 연수를 통해 적극적 교육 활동을 격려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이것은 EU 등 국제사회에서 지원하는 평화교육 교사연수 프로그램에서 가장 강조하는 주제이다.

교사들 사이에서조차 정치가 양극화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에서 그리스, 튀르키예, 키프로스 아이덴티티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다양성 안에서 하나됨을 지향할 수 있을 것인가? 등에 대한 고민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키프로스 교육제도의 분리주의적 형성과정은 정치적 보수화 혹은 민주화와 비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판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자칫하면 교사들의 정서적 반발(emotional reaction)을 일으키게 함으로 교사연수를 통해 자기들의 고민을 털어놓는 스토리텔링이 중요하지요. 자기 경험의 공유를 통해 현실적 적절성(appropriateness)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키프로스 정부는 교육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통제를 하지 않으나 교사들은 불안을 느끼고 있어요. 이것을 평화교육 연수를 통해 보편적 가치로, 즉 유엔(유네스코)의 교사권리, EU헌장 등을 토대로 의식화 하다보면 역지사지(易地思之)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마나)

역사적 화해와 다양성을 중심에 두는 다원주의적 교육으로의 방향 전환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교사연수와 학부모교육이 평화와 인권교육의 관점에서 요구된다(Zembylas, 2020). 시민사회에서는 특히 이 부분을 강조한다. 하지만 교사들은 아무래도 교과서 중심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모국 기반의 해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리스 친화적 분위기가 지배적인 정치, 종교, 미디어, 교육환경에서 교사 혼자 평화공존을 주장할 수는 없다. 결국 시민사회와의 협력은 바로 이러한 의식의 탈구를 위해 요청된다.

역사적 화해(historical reconciliation)의 교육을 AHDR은 가장 강조합니다. 하지만 북에서 가족이 희생당한 사람들의 경우엔 화해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보입니다. 이제 나뉘어졌으니 서로 부딪히지 말고 우리끼리 따로 잘살자는 것이죠. 1974년을 경험한 세대들의 반발이 큰데 일부 어린 아이들도 가정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다 보면 튀르키예 북쪽은 무조건 나쁜 거고 그들이 침략했다는 면만, 즉 피해자적 관점만 부각시킵니다. 실은 튀르키예 쪽도 엄청난 희생자거든요. 정치가 이를 정쟁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 다원주의적 입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무슨 과목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평화교육은 그런 기본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다나)

2. EU의 틀 안에서 혼종적 정체성

정체성 문제는 평화교육에서 중요한 이슈이다. 이미 단일 정체성을 넘어선 복수적, 혼종적 정체성이 세계시민교육에서는 평화의 토대임을 강조한다(Reardon, 1988). 다원주의 사회에서 단일 정체성은 갈등의 원천이다(Kang, 2010; Davics, 2008). 세계시민으로서의 혼종적 정체성으로의 발달이 다문화 평화공존 교육의 방향이다.

그리스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키프로스공화국 내에서 그리스인이냐 키프로스인이냐는 정체성 대립은 여전히 심각하다. 그리스인들이 주변 섬지역으로 흩어져 나가 살면서 섬나라가 단일 국가로 독립한 경우는 키프로스뿐이다. 주변의 가장 큰 크레타섬도 독립을 위한 내란도 겪었으나 결국 그리스로 남았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그리스계 키프로스인들의 그리스인 정체성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키프로스는 지정학적으로 그리스보다 튀르키예가 훨씬 더 가깝기 때

문에 그리스 섬으로 남기에는 정치적 갈등과 혼란이 너무나 큰 충동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그리스계 키프로스인은 그리스인이냐 키프로스인이냐는 대립적 정체성 갈등을 넘어서 그리스계 혈통을 지닌 키프로스인으로 유럽시민이라는 혼종적 시민성을 포괄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미 1974년 내란을 통해 키프로스 평화를 그리스가 지켜준다고 믿는 그리스계 키프로스인들은 많지 않다. 그럼에도 그리스와 키프로스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주민들이 그리스 정교회를 신앙으로 하는 그리스적 정체성을 강조한다. 튀르키예쪽도 마찬가지이다. 이슬람 모스크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튀르키예 민족정체성이 키프로스인이라는 정체성을 압도한다. 역사적으로 키프로스에서 상대적 소수민족이었지만 그들은 지정학적 안정보장을 모국인 튀르키예가 해준다고 믿는다. 그래서 양 모국의 정치적 지형에 따라 키프로스의 정세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유엔은 키프로스 평화구축을 위해 다각도로 대화를 중재하고 있으며 EU도 마찬가지이다. 비록 2004년 유엔 중재안이 남측의 반대로 부결되었지만, 2008년 선출된 AKEL정부에 의해 남북 키프로스의 평화공존안이 공론화되었다. 디미트리스 크리스토 피아스 대통령은 그린라인 4곳의 체크포인트를 개방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다문화 평화공존 교육을 공식적인 정부 정책으로 발표하였다(Zembylas et al., 2011). 이제 키프로스의 다문화 평화공존 교육은 키프로스 정부의 일관된 평화교육 방향이 되었고, 국제사회가 이에 화답하며 상당한 국제교류 및 협력 프로젝트가 평화교육 실천에 주어졌다. 물론 이에 반발하는 교사집단이 더 많다. 누구랑 공존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다. 특히 평화가 침략자의 과거를 무조건 용서하라는 것인가에 대해 정서적으로 용인이 안되는 피해자 가족이 여전히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정서를 정치적으로 부추기는 정당이 개인적 반감을 정치화하기 때문에 평화교육만으로 해소하기는 쉽지 않다 (Zembylas, 2015).

우리가 섬나라 사람이란 인식도 있고 인구도 적고 건물도 크지 않지만, 우리끼리는 우리 문제만 너무나 큰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거든요. 키프로스 경험으로만 위축되지 말고 국제협력 수준(Global Level for Cooperation beyond Cypriot Experience)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칫 우물 안의 개구리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죠. 그런데 이렇게 국제협력 과정에서 세계인권선언, 아동권리협약 같은 것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 문제도 세계 문제고, 또 우리도 세계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겠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바나)

오늘날 평화공존 교육이 잘못되었다고 부정하는 교사집단이나 학부모집단은 많지 않다. 이런 단계에서는 개인의 정치적 반감을 자극하며 원론적으로 이를 정책화하기보다는 각 개인 혹은 집단이 처한 역사적 경험의 차이를 인정하도록 하는 역사적 화해 교육과정이 다양한 맥락에 맞게 교과별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다양성 수용이 역사적 상호이해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에 따라 키프로스 정부는 페даго지 연구소(Pedagogical Institute)를 설립하여 교육과정 개발 뿐만 아니라 교사연수를 통해 단일정체성에 함몰된 민족주의 교육을 극복하도록 다문화 평화공존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이때 정부 주도가 아닌 시민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키프로스의 시민사회

는 국제기구 및 다양한 유럽국가들의 협력과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폐쇄적인 키프로스의 맥락으로부터 자유롭다. 이를 통해 키프로스 경험에 한정된 폐쇄적 단일정체성을 넘어서 그리스 민족주의와 키프로스인 정체성에 유럽시민성이 혼종된, 소위 보편성과 특수성이 결합된 키프로스 시민정체성으로 발전된 분단극복 평화교육이 가능해진다.

일례로 AHDR(Association for Historical Diversity and Research)이 독일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5년 이상 시행한 이매진(Imagine) 프로젝트는 국제협약의 제 규약을 바탕으로 키프로스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것이었다(오기성, 2021, 44-46 참조). 지금은 종결되었지만, 유엔도 참여하고 유럽 국가들과 교류·협력을 하면서 키프로스 문제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분쟁을 객관적으로 살펴 보면서 자국의 미래지향적 극복의 길을 여는 참여적 평화교육이다. 여기에는 EU도, 키프로스 정부도, 교회도, 시민사회도, 다양한 소수 민족도, 심지어 북키프로스의 주민들도 함께 참여하면서 여기서 만난 교사들과 학생들의 변혁적 의식화 과정을 경험하는 적극적 시민교육의 성과를 얻게 된다.

저는 우리 학생들과 함께 이매진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스어와 역사를 플라티 중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리스계 키프로스라는 틀에 갇히는 것이 문제라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튀르키예쪽 피해자도 있는데, 그들을 일방적으로 가해자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수업시간에 직접 그 문제를 다루기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매진 프로그램에서 그런 주제를 공개적으로 평화교육 활동으로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공동으로 화해의 길을 이미지화하여 평화를 만들어 보니까 우리도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길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다나)

이러한 시민사회 활동뿐만 아니라 유네스코도 협동학교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유네스코의 보편적 평화문화의 가치를 키프로스 상황에 적극적으로 적용해 나가고 있다. 키프로스의 경우 평화는 학교폭력 같은 미시적 행동 문제보다는 양 공동체간의 공존, 즉 분단 극복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34개의 유네스코 ASP학교가 활동 중인데 이들의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조정하는 교육부 차원의 사업도 활발하다.

전 고등학교교사 출신 장학사(Inspector) 인데 3년전부터 UNESCO ASP 책임자로 발령받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교별 담당교사가 있어 이들과 협력하며 유네스코 교육철학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매년 일회 전국 유네스코학교 평화교육 대회를 여는데 올해의 주제는 ‘평화공존과 평화로운 삶’이었습니다. 학교마다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데 다들 적극적입니다. 유네스코 철학의 핵심이 평화라고 보기 때문에 키프로스 평화교육을 실천하는 가장 교육적인 단위가 유네스코 협동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키프로스인 혹은 그리스인을 넘어선 세계시민으로서 유네스코의 보편가치를 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가나)

세계의 여성단체들도 키프로스의 분쟁상황 시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며 ‘인간띠 잇기 걷기(Women’s Walk)’ 프로젝트를 주관했는데 이때 여교사와 여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학부모들도 함께

참여하였다. 모든 행사에 학부모 참여를 독려하고 이들의 의식변화도 고려하고 있다.

학교장으로는 작년에 왔습니다. 중상층 지역의 학교로서 학부모들의 교육열이 상당합니다. 저는 교육학 관련 연구소에도 있었고 교직 경험도 갖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세계시민교육에 관심이 많아 우리 학생들과 교사들이 국제교류나 대외 활동에 많이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협동학교 사업에 열심히 참여할 뿐만 아니라 EU 에라스무스 프로젝트에 응모하여 교사나 학생들이 유럽국가와 상당히 자주 교류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있다면 키프로스 섬에 갇힌 사고를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독일에 가서 분단의 문제를 함께 이야기하며 키프로스 문제를 객관화하는 스토리텔링을 하였는데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우리도 북쪽 사람들에게 잘못을 했다’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학부모들에게 자세히 설명하며 문제가 생길 경우 제가 나서서 교사들이 곤란에 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의 학교는 학부모들도 상당히 호의적이고 오히려 이런 프로그램을 해줘서 다행이라고 하십니다. (라나)

시민사회의 적극적 평화교육 지원활동으로 2019 IPE⁴⁾가 키프로스의 AHDR과 함께 진행하였는데 이 때 주제가 ‘학교 교육과정에서 평화와 다양성(Peace & Diversity in School Curriculum)’이었다. 행사가 진행되는 일주일간 전 세계에서 다양한 경험을 가진 평화교육 전문가

4) 1999년 헤이그어펠에서 평화교육이 핵심아젠더로 선정되면서, 베티 리어든교수 중심으로 GCPE(Global Campaign for Peace Education)이 전개되었다. GCPE의 연장 활동으로 각국을 순회하는 격년 행사로 IPE(International Institute of Peace Education)가 추진되었는데 2019년에 키프로스에서 열렸다. 한국에서는 2003년 유네스코 APCEIU의 주관으로 열린바 있다.

들이 모여 대화하며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 자체가 작은 섬 안에 사는 키프로스인들에게는 큰 자극이었다.

IIFE에 참여했던 것은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한 자극이었습니다. 우리 문제가 곧 세계문제라는 인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세계에서 중요한 문제가 난민문제입니다. 키프로스는 지중해에 있는 섬으로 레바논이나 시리아, 이스라엘 등이 아주 가깝습니다. 또 영국의 군사기지도 있어 자칫 국제전에 휘말릴 가능성도 크지요. 그래서 시민사회로서는 이런 문제를 민감하게 생각하며 프로그램을 만들어 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그러면서도 난민에게는 인도주의적 환대를 정성껏 잘 하도록 포용적인 다문화교육(Inclusive, Intercultural Education)을 프로그램화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1974년 경험을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의 역사가 이주의 역사고 그런 만큼 뉴커머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곤 합니다. (사나)

오늘날 키프로스는 지중해 난민들의 거점이 되어 있다. 레바논, 수단, 시리아 등지에서 밀려온 난민들로 정치사회적으로 상당히 복잡하다. 그럼에도 다른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키프로스인들은 국제규약에 따라 난민들을 포용하려고 노력한다고 한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다문화 평화공존 교육의 성과로도 볼 수 있다.

3. 키프로스형 탈식민지적 평화교수법(Peace Pedagogy) 개발

키프로스 맥락에서 생성된 다문화적 평화공존교육 모형은 탈식민지적(decolonial) 맥락에서 도출된 자생적(local) 틀로서, 키프로스의 분

단과 갈등 경험에서 파생된 자기 이야기를 자기 방식으로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럽의 작은 섬 국가인 키프로스의 학제나 이론 대부분이 자국에서 생성된 것이라기보다는 모국 그리스나 식민지종주국 영국에서 도입된 것이다. 그래서 가해국가의 언어와 이론을 가지고 키프로스에 적용해 보려고 하니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다. 이런 논의의 결과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의 역사이고, 우리의 역사적 아픔과 상처를 극복하기 위한 화해와 용서 그리고 평화도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의 시각에서 도출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Johnson, 2007; Hadjipaulou, 2007; Zembylas, 2020).

하지만 이것이 곧 아(我)만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다. 이를 위해 상생해야 하고 객관화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 기구인 페다고지 연구소의 역할이 중요하고 제네바에 있는 유네스코 연구소나 EU 기관 그리고 영국, 그리스나 튀르키예의 전문가들과 같이 상생의 길을 찾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교육과정에서 정하는 교과목에서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교사가 주도적으로 진행한다. 그리스어, 영어 등 언어교육이 아주 중요하게 간주된다. 1990년대 이후로는 과학 특히 STEM이 강조되고 있다. 음악, 체육 등에서는 그리스적인 특성이 많이 드러난다. 종교는 일반 종교학도 다루지만 그리스 정교회의 교리와 무관할 수 없다. 사회, 정치, 역사도 해석의 차이가 강하다. 사실 교과별로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점이나 입장도 다르다. 그래서 모든 교과에서 우리의 문제를 희생자적 관점에서 이야기하기 (storytelling)로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저는 영어선생입니다. 그동안 주로 시험을 위한 문법 위주의 영

어교육이 강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소통 도구교과인 외국어가 평화 교육에서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1974년 사건을 가지고도 다양한 용어나 번역 등을 통해 얼마든지 역사교육과 유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평화공존 교육의 필요성으로 1974년의 제 경험을 오늘날의 난민이해교육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난민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주위에서 난민을 찾아 이야기를 듣게 하고 이를 영어로 번역하게 하는 수업은 아이들도 재미있어 합니다. 많은 교사들이 자기 이야기를 통해 난민의 수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교육합니다. 여기서는 대통령 만나기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대통령도 학생들과 만나 다양한 자기 이야기를 하고 교육부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업시간에 실종자 가족 이야기나 트라우마에 대한 개인사를 함께 이야기하며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든 교사들이 모든 과목에서 다 시도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스토리텔링 자료를 평화교육의 보조교재(supplementary materials)로 활용하는 협동학습이 필요합니다. (다나)

갈등사회에서 논쟁거리가 될 만한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것 자체가 실은 불편(discomfort)하다. 억압적 환경이든 민주적 사회이든 대부분의 공교육은 동조, 동의 혹은 칭송의 교수법(pedagogy of celebration)을 따른다. 하지만 정서적 불일치나 사회적 합의 부재의 주제를 다루는 이른바 불편부당의 교수법(pedagogy of discomfort)은 비판적 사고를 위해 요구되는 적절한 교수법이다. 이것은 북아일랜드나 갈등사회에서 논쟁적 주제를 다룰 때 적용하던 교수법이다(Zembylas & McGlyne, 2012). 변증법적 교수법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이러한 교수법은 갈등사회나 분단사회 같은 환경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입장

바뀌어 생각해 보는 교육'의 한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사실 이를 위해서는 교사가 안심하고 자기 수업에서 논쟁거리를 다룰 수 있도록 학교분위기를 열어주는 평화리더십이 요구된다.

Ritokarpaso는 북키프로스에 위치한 그리스계 지역입니다. 여기 학교와 저희 플라티학교는 자매결연을 맺고 한 달에 한 번씩 교사들이 오가면서 수업을 합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들지만 우리 학생들이나 교육자들이 키프로스의 다양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때론 왜 분단되었냐고 누구 잘못이냐고 묻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1974년 쿠데타가 없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우리도 잘못이 있다고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할 경우 교사가 아주 부담이 크지요. 모든 교육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튀르키예의 침략부분만 강조해야 하지만 저는 학부모들을 설득해서 학생들을 참여시켜 모든 질문과 토론을 자유롭게 하도록 합니다. 자연히 북키프로스 상황을 듣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문화적 다양성과 평화공존의 가치를 인식하게 됩니다. UN Day에 참여하는 것도 모두 참여해서 결정합니다. 이러한 결정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평화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나)

다행히 키프로스의 기간 학제에서는 난민을 포함한 모든 아동들이 차별없이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다양성과 평등,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는 키프로스 다문화 평화공존 교육은, 범죄 없고, 안정적이고, 공평하며, 포괄적인 일반 교육의 틀 위에서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를 포용하는 비폭력적 평화교육의 특성을 발전시킬 수 있게 한다. 이것은 정부의 일관성 있는 다문화 평화공존 교육의 기반 제공, 페다고지 연구소의 전문적 지원, 교사의 적극성, 시민사회와의

협력 및 국제사회와의 교류 및 협력의 확대 등이 어우러질 때 그 효과는 개인적 자존감의 향상, 지역사회의 안정적 발전, 국가의 통합적 리더십 향상, 그리고 글로벌 사회에의 기여 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키프로스 평화 페다고지의 축적은 분단극복 평화교육의 중요한 경험을 보강하면서 보편적 평화교육의 한 축으로 발전될 것이다.

IV. 21세기 분단극복 평화교육의 과제

한반도와 유사하게 식민지를 겪고 내부 갈등이 UN평화유지군을 주둔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분단사회로 이어진 키프로스공화국의 분단극복 평화교육은 대부분의 분단사회에도 적용가능하다(Bekerman & McGlynn, 2007; 강순원, 2017). 대부분 분단사회에서 통일이나 공존이냐는 고전적인 질문은 어느 분단사회이든 현실적으로 중요하다. 주로 보수적인 민족주의자들은 단일 민족정체성에 근간한 통일을 강조하고 진보적인 정파에서는 연방제 통일보다 더 유연한 혼종적 정체성에 기반한 평화공존 방안을 강조한다. 이같이 평화교육의 방향이 정파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으면서도 전쟁은 피하자는 것이 공통적인 평화교육의 원칙이다. 물리적 충돌이 야기한 역사적 트라우마를 기억하면서 이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각기 모색하는 반전·다문화·평화공존 교육이 분단사회 평화교육의 방향이고 보편적 평화교육의 방향과도 일맥상통한다.

키프로스 분단극복 평화교육을 통해 분단사회가 공통적으로 고민하며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점은 글로벌 보편성과 분단사회의 특수

성의 결합, 분단의 역사가 길어지면서 마주치는 글로벌 환경의 변화, 단일 민족정체성 기반의 통일이 1974년 이후 이원화된 국가 시스템 하에서 여전히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 탈식민지적 관점에서 키프로스 정체성이나 평화교육 방향 재모색, ‘유럽의회권고 2001’에 따른 기존 역사교육 방향에서의 탈피, ‘로칼+글로벌+국제’의 복합적 관점에서 이주의 역사를 고려하며 평화공존 방안을 비판적으로 사고하도록 교육, 평화교육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를 연동해서 교육,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 참여 등 대단히 복합적인 요소들을 이 시점에서 다각도로 고려하면서 키프로스 사례가 분단극복 평화교육에 미치는 핵심적인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다문화적 평화공존 교육모형은 분단사회가 고민하는 통일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전환이다. 강병철(2020)은 키프로스공화국 국민들의 유엔중재안 통일 반대 국민투표 결과를 설명하면서 우리나라 통일교육의 강화를 요청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통일 여건을 조성하여도 자국민이 반대하면 할 수 없기에 우리는 미리부터 통일교육을 잘하여 여건이 조성될 때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분명히 국가통일은 외부 여건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통일절대론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함께 분단국이었던 독일이나 베트남은 왜 통일이 되었고 키프로스는 왜 통일을 할 수 없었는지, 그리고 현재 분단국인 북아일랜드나 한반도는 왜 아직도 분단 체제를 극복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탐구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키프로스의 경우 공교육에서는 분단극복 평화교육의 방향으로서 다문화 평화공존 교육을 적시하고 있다. 북키프로스를 제외하면 주민의 99%가 그리스계인 상황에서 그리스 민족주의에 기반한 통일은

북키프로스의 키프로스공화국으로의 흡수이다. 그러나 북키프로스의 경우는 단연코 각자도생 탁심이다. 교육제도는 아주 달라 남쪽 체제는 그리스어가 모국어고, 북쪽 체제는 튀르키예어가 모국어다. 문화와 종교도 완전히 다르다. 역사적 트라우마도 비슷하나 서로 자파의 트라우마만 강조한다. 그래서 서로를 적대화한다.

키프로스공화국에서는 2004년 유엔 평화중재안을 부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이후 국정방향이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상호 공존역량을 기르는 교육이 공식적인 교육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되었고 시민사회도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키프로스섬을 공유하고 있는 양쪽의 분단 체제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존역량을 기르는 평화교육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여기서 공존역량이란 키프로스인에 대한 정체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리 정의될 수 있다. 키프로스에 사는 그리스인이라는 단일 민족정체성을 넘어서서 키프로스 저편에 사는 튀르키예계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소수민족들과도 더불어 공존할 수 있는 기본 역량과 그 토대인 혼종적 정체성, 즉 그리스인이자, 키프로스인이고 유럽시민이고 세계시민이라는 다중적 정체성 즉, 혼종적 정체성으로의 발달이 중요하다. 그래서 서로의 문화, 종교, 언어, 이주의 역사, 체제를 상호 존중하는 다양성 교육이 핵심이고 서로에 대한 관용, 배려, 공감, 평등, 상호이해와 협력 등의 공존역량이 교육을 통해 육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역사적으로 형성된 이주의 역사로 빚어진 폭력적 갈등에 대해 자파적 이해가 아닌 상호이해적 차원에서 평화공존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역사적 화해를 개인적 용서 차원을 넘어선 다원주의적

역사 이해로 시도하며, 지역사회 간 접촉을 확대하는 접촉이론에 의거하여 서로의 아픈 상처를 보듬는 평화감수성 기반의 스토리텔링을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진행하고, 개인적 보복 및 응전이라는 전통적 갈등 해소가 아닌 회복적 정의 관점에서 새로운 공존 공동체 만들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문화적 평화공존 교육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전개되고 있다. 특히 역사적 트라우마를 힐링하는 지역사회 간 프로그램이 시민사회 주도로 이루어지고 이 성과가 학교 평화교육의 보조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은 학교와 지역사회 협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둘째, 글로벌 환경에서 요구되는 다국적 차원의 키프로스 평화프로세스에 조응하는 평화교육은, 주어진 외부적 조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국제이해/세계시민교육이어야 한다. 한반도와 마찬가지로 키프로스에는 유엔군이 주둔하고 있다. 초기엔 남북 간의 왕래가 금지된 상태로 서로의 접근을 제한하는 평화유지군의 성격이 강했으나, 현재 9개의 검문소를 통해 상호왕래가 가능한 상태로 군사적 목적 이외 키프로스 평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반 평화교육적 활동을 독려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한반도에 주둔하는 유엔군과는 달리, 키프로스 유엔군은 군사적 목적 외에 유엔이 지향하는 국가 간의 이해와 협력, 평화와 인권을 진작하는 국제이해 활동을 EU로부터 지원을 받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문선혜, 2021). 이때 파트너로 참여하는 AHDR 같은 시민사회나 정부도 키프로스 평화교육의 비전을 국제협약의 기본 가치에서 찾는다⁵⁾.

5) ADHR은 기관의 설립가치를 세계인권선언, EU인권헌장, 유네스코의 교육 목적, 그리고 유럽의회의 역사교육 권고 등에 반영된 가치를 준수한다고 선언한다. <https://www.ahdr.info/about-us/who-we-are/>

키프로스는 지정학적 위치상 중동의 화약고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키프로스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 보이기도 하지만 한편 그렇게 복잡하기에 키프로스가 다른 조건을 조정하며 지역협상을 주도해 나갈 수도 있다. 그것은 키프로스 내 정치적 안정과 평화적 리더십에 달려 있다. 키프로스나 북아일랜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한반도처럼 분단사회에 살면서 역사적 상처를 안고 적대화하면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평화적 공존을 위한 교육은 해당 분단국가나 이웃 국가 더 나아가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해서도 아주 필요하다. 따라서 EU 회원국이라고는 하나 작은 섬나라인 키프로스가 어떻게 분단체제를 극복하며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갈지 그리고 여기서 평화를 영속화하기 위한 교육을 협력적으로 잘할 수 있을지 전 세계의 평화교육자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일국의 평화가 유지되기 위해선 주변국이나 전 세계의 관심과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분단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이전 식민지종주국이나 제국주의 국가에서는 역사적 피해자인 피식민지해방국가 중심의 정의-기반의 국제이해/세계시민 교육이 필요하나 대체로 이러한 방향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사실 유엔이나 유네스코 자체도 유럽중심주의적 세계관에서 자유롭지 않다. 하지만 유네스코가 선언한 ‘1974년 국제이해교육 권고’에서 제시한 평화교육의 방향은 2023년 개정 권고안을 통해 국제이해/세계시민 교육이 평화를 영속하기 위한 교육으로 강조되었다⁶⁾. 여기서 평화를 영속시키기 위한

6) ‘2023년 개정 권고’의 원제는 아주 포괄적이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의미는 평화를 영속화하기 위한 평화교육은 인권, 국제이해, 협력, 기본적 자유, 세계시민성 및 지속가능발전을 포함하는 홀리스틱한 교육이라는 의미

교육의 필요성은 반드시 국가 간 이해와 협력 및 글로벌 관점이 국내 현안 해결에서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2023년 권고 24항 중 “모든 형식과 형태의 식민주의/신식민주의에 대한 비판적 사고의 촉진 및 식민주의/신식민주의에 맞서는 투쟁의 지지, 기억할 의무(duty of memory)의 지속적 이행, 입증된 역사적 사건에 대한 부정과 왜곡의 거부, 역사와 사회에서 여성이 담당하는 역할의 조명,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국가 간 및 국가 내 폭력과 긴장을 조장하는 지 아니면 화해, 평화 및 연대를 촉진시키는지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는 관점은 키프로스 다문화적 평화공존 교육을 비롯한 모든 분단극복 평화교육에서 반드시 상기해야 할 대목이다.

V. 맺음말

대부분의 분단 상황은 폭력적 분쟁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늘 안고 있다. 따라서 키프로스 분단극복 평화교육은 한반도 분단극복 평화교육의 방향에 일정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가정하여 현장연구를 통해 그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첫째, 분단극복의 방향이 통일이나 평화공존이냐는 오래된 질문은

이다. UNESCO. (2023). Recommendation on Education for Peace and Human Rights, International Understanding, Cooperation, Fundamental Freedoms, Global Citizenship and Sustainable Development.

‘1974년 권고’의 원제는 Recommendation Concerning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Co-operation and Peace and Education Relation to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키프로스의 경우 전쟁과 같은 물리적 충돌이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교훈 속에서 평화적 공존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통일절대론을 피해가는 분위기이다. 단일민족 정체성에 근거한 통일은 언제고 타민족에 대한 배제를 수반하여 물리적 충돌로 귀결된다. 이것이 1974년 내전의 교훈이다. 어떤 경우에도 통일이 한반도나 키프로스 섬에서의 평화공존의 방향을 역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 남북의 분단은 남과 북 양쪽의 주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었다. 실향의 고통은 양쪽이 똑같다.

둘째, 나와 너의 언어, 문화, 종교, 의례 등 모든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하자는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이라는 의미의 다문화적 접근은 키프로스 다문화 교육으로 자리 잡았고 이것의 목표는 나와 나의 평화적 공존으로 그 방향은 역사적 트라우마 힐링을 통한 역사적 화해로서의 평화교육이다. 그리스계의 역사적 고통은 튀르키예계에게 있어서도 같은 역사적 상흔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이 다문화 평화공존 교육의 시작이다. 그래서 서로 아픔을 이야기하고 함께 하는 미래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다.

셋째, 키프로스형 평화교수법은 식민지종주국인 영국이나 양 계파 민족의 모국에서 수입해 오는 것이 아니라 상호배움을 통해 스스로 학습하고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여기서 정부와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가 협력하고 국내외 평화활동가들이 연대할 수 있다. 이것이 탈식민지적 평화교수법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통일교육지원법’ 11조에 고발 조항이 있어 대북 관련 민감한 주제를 다루기가 어렵다. 그래서 키프로스처럼 유엔이나 EU 등의 근거 규정을 토대로 안심하고 논쟁거리를 다루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유엔군을 비롯한 국제기구 그리고 이웃 유럽국가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국제이해/세계시민 교육은 키프로스 다문화 평화공존 교육의 위상을 넓혀주며 혼종적 정체성을 지닌 키프로스 시민으로 성장하게 하는 동력이다. 따라서 국제이해/세계시민 교육으로서의 평화교육은 키프로스뿐만 아니라 분단사회 평화교육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방향이다. 키프로스의 지정학적 위치상 국내문제까지 오로지 국내 현안일 수만은 없다. 곧 주변국과의 관계문제로 떠오른다. 더구나 영국령 군사기지 두 곳이 존재한다. 여기서 언제고 나토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어 중동이 불안해지면 여기도 불안하다. 따라서 국가 간의 이해와 협력 그리고 국제기구를 통한 협상 등이 키프로스 문제에서 매우 중요하다.

한반도도 적대적인 주변국가로 둘러싸여 있다. 동서냉전의 주요국이 한반도의 분단에 모두 관계되어 있다. 한반도 분단이 국내문제에서만 연유된 것이 아니듯이 한반도의 통일을 포함한 평화공존 방안도 국제적인 이해와 협력 그리고 조율이 필요하다. 여기서 군사적 지위만이 강조되는 유엔군의 평화적 행보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지만,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유엔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다. 따라서 유엔 혹은 유네스코의 평화교육의 기반이 되는 관련 규범들을 한반도 상황에 맞게 조율하여 분단사회에서 평화를 영속화할 수 있는 교육이 안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강순원, 2022).

어느 경우에도 비판적 역사교육을 통한 상호이해와 용서 그리고 화해를 통해서만이 분단사회에서 평화공존이 가능하다. 분단의 역사성과 지정학적 차이 등으로 분단극복의 조건과 방향 역시 차이가 있

지만, 키프로스의 다문화 평화공존 교육은 한반도를 비롯한 분단사회의 보편적 분단극복 평화교육의 공통분모로 기능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참고문헌

- 강병철(2020). 키프로스 통일협상과 한국의 통일교육 과제. **倫理研究**. 1(128). 한국윤리학회. 217-237.
- 강순원(2017). **북아일랜드 통합학교기행/분단을 넘어서**. 과주: 한울.
- 강순원(2022). 유네스코 평화교육의 한반도 현지화. **교육사회학연구**. 32(1). 한국교육사회학회. 1-29.
- 강순원, 오덕열(2020). 유네스코 평화교육과 한국 평화·통일교육의 비판적 검토. 앨런스미스·강순원·오덕열. **한국 평화교육의 비판적 검토; 유네스코 평화교육의 관점에서**(63-194). 서울: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 강순원, 오덕열(2024). 인천광역시교육청 평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화교육 연구기관 설립 기초연구. **인천교육-2024-0167**. 인천광역시교육청.
- 김경민(2019). 동방문제(Eastern Question)와 영국의 키프로스(Cyprus) 점령으로 본 자유주의적 제국 정책. **영국연구**. 42. 영국사학회. 243-277.
- 김현정(2021). 분리와 통합의 관점에서 바라 본 키프로스 분쟁과 DMZ 문제. **한국과 국제사회**. 5(5). 한국정치사회연구소. 63-88.
- 문선혜(2021). 한반도 DMZ와 키프로스 UN 완충지대 비교 연구. **북한법연구**. 26. 통일과북한법학회. 165-205.
- 서혜림(2024). 키프로스, 이-헤즈볼라 충돌에 불똥 경계...대통령 “개입 안해”. 서울발 연합뉴스. 2024년 6월20일.
<https://www.yna.co.kr/view/AKR20240620120300009> (2024년 10월28일 접속)
- 안정은, 권주현(2021). 분쟁에 의한 접경지역에서의 3자 개입에 따른 평화협

- 력 향후 과제: 키프로스 와 북아일랜드 사례를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33(2). 평화문제연구소. 113-148.
- 오기성(2021). 분쟁 이후 평화를 위한 키프로스의 교육과 한국 통일교육에의 함의. **교육연구**. 82.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31-55.
- 오덕열, 강순원(2021). 평화교육으로의 재구성을 위한 통일교육의 비판적 검토. **국제이해교육연구**. 16(1).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33-65.
- 우덕찬(2008). 키프로스통일 문제에 관한 연구. **지중해지역연구**. 10(2). 지중해지역원. 33-53.
- 이미령(2019). [조용한 영토분쟁] <53> 키프로스, 독립 60년 지나도 여전히 영국 흔적: 키프로스 내 영국령 군사기지, 아크로티리와 데켈리아. 한국일보. 2019년 9월27일자.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9271099026051> (2024년 10월 28일 접속)
- 조상현(2020). 적대국가 간 초기단계 신뢰회복에 관한 연구 - 키프로스의 통일 협상과 교류협력을 중심으로 -. **한국군사학논총**. 9(2). 미래군사학회. 179-205.
- 한명섭(2020). 키프로스의 분단과 통일 문제에 대한 연구. **북한법연구**. 23. 통일과북한법학회. 43-94.
- 한명섭, 문선혜, 김 원, 하영욱, 한재준(2020). **키프로스 분단과 통일 방안**. 서울: 좋은 땅.
- Antoniou, Marios(2015). The Prospects for Peace Education in Cyprus: Exploring the Potential for Future United Education Through the Examination of a Bi-Communal School. *Journal of Peace Research*. 44(3). Peace Research Institute Oslo. 349-365.
- Bekerman, Z. & McGlynn, C.(eds.)(2007). *Addressing Ethnic Conflict Through Peace Education: International Perspectives*. New York: Palgrave.
- Carnoy, Martin(1977). **교육과 문화적 식민주의**. 김쾌상(역). 서울: 한길사. 1980.
- Davies, Lynn(2008). **극단주의에 맞서는 평화교육**. 강순원 (역). 파주: 한울. 2014.
- Demetriou, C.(2019). Divide and rule Cyprus? Decolonisation as process.

- Commonwealth & Comparative Politics*. 57(4). Taylor & Francis. 403-420,
- European Union(2023). *Education and Training Monitor 2023*. European Commission.
- Galtung, J.(1975). Peace: Research, Education and Movement. In *Encyclopedia of peace education*. ed. by M. Bajaj. Charlotte, NC: Information Age. 권순정, 오덕열, 정지수 (역) (2022). **평화교육, 과거, 현재 미래를 그리다**(pp. 81-94). 서울: 살림터.
- Galtung, J.(1996). *Peace by peaceful means*. London: Sage.
- Hadjipaulou, Maria(2007). Multiple Realities and the Role of Peace Education in Deep-Rooted Conflicts: The Case of Cyprus. *Addressing Ethnic Conflict Through Peace Education: International Perspectives*. Bekerman, Z. & McGlynn, C.(eds.). New York: Palgrave. 35-48.
- Jennings, Ronald(1993). *Christians and Muslims in Ottoman Cyprus and the Mediterranean World, 1571-1640*.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Johnson, Laurie(2007). Reconciliation and Peace Education in Cyprus: What will it Take?. *The Cyprus Review*. 19(1). University of Nicosia. 17-41.
- Kambouri, Maria(2012). The Educational System in Cyprus. *WIEGA*, Vol. 5, 57-67. Institute of Education. University of Warwick.
- Kang, Soon Won(2010). Multicultural Education and the Rights to Education of Migrant Children in South Korea. *Educational Review*. 62(3). Taylor & Francis. 287 - 300.
- Kimitris, Petros(2018). The Cypriot Educational System and the Lesson of History. <https://files.eric.ed.gov/fulltext/ED589150.pdf> (2024.10.30.접속)
- Ktori, M.(2023). Optimizing coastal exhumation strategies: The casework of the Committee on Missing Persons in Cyprus (2006 - 2022). *Science & Justice* 63(3). The Chartered Society of Forensic Sciences. 349-363.
- Madianou, Mirca(2012). *Mediating the Nation*. New York & London: Routledge.
-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MOEC)(2023), *A Guide to Education in Cyprus*. Nicosia: MOEC.
- Papadakis, Yiannis(2008). Narrative, memory and history education in divided Cyprus: A comparison of schoolbooks on the history of Cyprus. *History &*

Memory. 20(2). 128-148.

- Reardon, Betty(1988). **포괄적 평화교육**. 강순원(역). 서울: 살림터. 2021.
- Rotsides, Christina(2001). *The Educational System of Cyprus Since 1960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The Relationship With The European Union*. University Wolverhampton, School of Education Ph.d Dissertation.
- UNESCO(2023). Recommendation on Education for Peace and Human Rights, International Understanding, Cooperation, Fundamental Freedoms, Global Citizenship and Sustainable Development.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86924>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홈페이지 자료 국제규약부문에 번역본 있음. <https://unesco.or.kr/standard/>
- Upadhyaya, Priyankar(2020). Building Peace through Education and Culture: Evolving UN Perspectives. *Strategic Analysis*. 44(5). Manohar Parrikar Institute of Defence Studies and Analyses. 429-437.
- Zembylas, Michalinos(2015). *Emotion and Traumatic Conflict: Reclaiming Healing in Education*. London: Oxford.
- _____ (2020). Toward a Decolonial Ethics in Human Rights and Peace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ights Education*. 4(1). 1-31.
- Zembylas, M. & Bekerman, Z.(2008), Education and the Dangerous Memories of Historical Trauma: Narratives of Pain, Narratives of Hope. *Curriculum Inquiry* 38(2). 125-154. The Ontario Institute for Studies in Education of the University of Toronto.
- Zembylas, M., Charalambousa, C., Charalambousa, P. & Kendeou, P.(2011). Promoting peaceful coexistence in conflict-ridden Cyprus: Teachers' difficulties and emotions towards a new policy initiative.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27. Elsevier. 332-341.
- Zembylas, M. and McGlynn, C.(2012). Discomforting pedagogies: emotional tensions, ethical dilemmas and transformative possibilities. *British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38(1). British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41-59.

<자료>

Peoples Dispatch. Cypriots protest use of bases by UK in imperialist conflicts (2024. 1. 16).

<https://peoplesdispatch.org/2024/01/16/cypriots-protest-use-of-bases-by-uk-in-imperialist-conflicts/> (2024년 11월1일 접속).

r/MapPorn(2024). Ethnic Greek Areas in Cyprus: 1831-2011.

https://www.reddit.com/r/DrewDurnil/comments/15tawyp/greek_population_of_cyprus/?rdt=56357 (2024년 10월30일 접속).

Abstract

**Peace Education to Overcome Division in Cyprus:
Towards Education for Peace • Coexistence
in the Multicultural Society**

Kang, Soon Won

(Hanshin University)

My paper puts its emphasis on exploring the peace education for overcoming division in Cyprus, which maintains the future-oriented system of peace and coexistence and makes healing of the historical trauma inherited from the suffering division through the methodology of literature review and field research. The Cypriot division is resulted from a kind of ethnic and religious differences, free from the ideology-based differences in the Korean Peninsula. It is a consequence of what the evils of 'divide and rule' strategy of UK Colonialism reinforced the community division between the Greek and the Turk through education and the faiths, seriously impacted on the separatist clashes between them after independence and extremely terminated to the civil war in 1974. Ever since, in the Republic of Cyprus the multicultural education for peace and coexistence has been implemented in the schools in order to develop the competences for overcoming the historical trauma and living together with neighbors as global citizens with the strong support and cooperation of civil societies,

EU, UN and overseas peace advocates. The Cypriot model of education for peace, coexistence and cultural diversity which connects the Cypriot particularity and global universality may influence on developing peace education for overcoming division in the divided conflicting societies towards the peaceful coexistence between the hostile communities.

Key words : Cyprus, Peace Education to overcome Division, Multicultural peaceful coexistence education, storytelling, historical trauma

투고신청일: 2024. 11. 10

심사수정일: 2024. 12. 17

게재확정일: 2024. 12. 19.